추풍령(역사성7, 인지도7, 접근성10, 연결성10)



추풍령(秋風嶺)은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과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의 경계에 있는 고개로, 높이는 221m이다. 백두대간 마루금 중에서 가장 낮은 고개이다. 동쪽의 난함산(卵含山)[733m]과 서쪽의 눌의산(訥誼山)[743m], 북쪽의 학무산(鶴舞山)[678m]과의 사이 안부(鞍部)에 위치한다.

추풍령은 동서의 두 산봉우리 사이의 고개이나 북쪽에 학무산과 지압산(芝壓山)이 가로막아 고개가 남북으로 소통되지 못한다. 또한 남사면에서 올라온 길은 재마루에서 모두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고개의 남사면은 급경사를 이루어 김천시까지 도달하며, 서사면은 비교적 완사면을 이루어 서쪽의 황간(黃澗)까지 평탄한 고갯길이 이어지고 있다. 남사면은 낙동강의 지류인 감천(甘川)이 깊은 계곡을 형성하고, 서사면은 금강의 지류인 송천(松川)이 황간에서 동쪽으로 분기하는 계곡과 이어진다.

추풍령을 통과하는 국도 4호선과 경부고속국도 및 경부선이 모두 이 계곡을 통과하고, 특히 김천에서 추풍령을 넘어 황간에 이르는 구간은 이들 교통로가 서로 밀착하여 달리고 있다. 또 옛 소로까지 합쳐져 있어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교통로의 발달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추풍령은 예로부터 영남 지방과 중부 지방을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다. 경부선의 개통으로 조령(鳥嶺)을 통과하던 교통량이 모두 추풍령으로 흡수되어 추풍령역이 개설되었으며 그에 따라 촌락이 크게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남 지방과 충청도 지방의 지역 간 교류에 큰 몫을 하였다. 특히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되면서 추풍령은 경부고속국도의 중간 지점에 해당되어, 추풍령휴게소와 여러 부대시설이 설치되었고, 여행객의 휴식처로 변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풍령은 임진왜란 때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593년(선조 26) 의병장 장지현(張智賢)이 경상도관찰사 윤선각(尹先覺)의 비장(裨將)이 되어 부하 수천 명을 거느리고 추풍령에서 왜군 2만 명을 맞아 치열한 전투 끝에 적군을 물리쳤으나, 다시 금산(錦山) 방면에서 진격하여 오는 구로다[黑田長政]가 이끄는 왜군의 협공을 받아 장렬히 전사한 곳이기도 하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질까 저어했다”는 추풍령

백두대간의 긴 허리 부분인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과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사이에 있는 당마루마을에서 당마루고개라고도 불리는 고개가 추풍령이다. 추풍령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어떤 유래로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당마루는 당령(唐嶺)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당나라 병사들이 진을 친 곳이라고 한다. 원래의 추풍령의 당마루마을은 하나의 마을이 경북당마루와 충북당마루로 나누어져 있다. 경부선 추풍령역은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에 있으며, 경부고속국도 추풍령휴게소는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다.

경부고속국도의 중간 지점인 추풍령휴게소에는 경부고속국도 준공 기념비와 추풍령노래비가 있다. 추풍령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김산군조에는 김천찰방에 속한 20개 역 중의 하나인 ‘추풍역(秋豊驛)’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경상도와 충청도가 갈리는 곳에 있어, 일본의 사신과 우리나라의 사신이 청주를 경유할 때에는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관에서 이들을 접대하는 번거로움이 상주와 맞먹을 정도로 실로 왕래의 요충’이었다고 한다.

‘추풍(秋豊)’은 ‘가을의 풍년’을 뜻하는데, 이것이 후대에 보다 시적인 표현인 ‘추풍(秋風)’으로 변하지 않아나 추측된다. 그러나 시적인 추풍령(秋風嶺)이라는 이름 때문에 옛날 영남의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하여 한양으로 갈 때 이 고개를 넘으면 고개 이름대로 추풍낙엽(秋風落葉)처럼 떨어질까 두려워서 넘기를 꺼려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구름도 자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 추풍령 고개”라는 유행가의 노랫말과는 달리 추풍령은 그리 높은 고개가 아니다. 물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넘기 힘든 지루한 고갯길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의 추풍령은 그렇게 험준한 고갯길은 아니다. 명색이 백두대간의 대표적인 고개이지만 김천에서 추풍령까지도 그렇게 험준한 편이 아니며, 고갯마루를 넘어서면 그만 슬그머니 평지가 펼쳐지는 것 같다. 경부고속국도 추풍령휴게소 입구에 있는 ‘추풍령’의 노랫말이 새겨진 노래비가 아니라면 누구도 고개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완만한 지형이다.

옛사람들은 고개를 험하기와 위치를 따져 ‘영, 재, 치, 티’로 구분하였고, 구름과 머리를 맞대

는 고개라야 '영'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란 이름을 추풍령에 달아 주었고, '구름도 자고 넘는, 바람도 쉬어 가는 …… 추풍령'이라는 노랫말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단순히 추풍령의 물리적 조건보다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산을 넘을 때 가장 가까우면서도 낮은 곳을 찾는 속성으로 백두대간 중에서 가장 낮은 이곳을 선택하였고, 영남과 중부 지방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고갯길인 문경새재와 더불어 가장 오래되고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담긴 고개라는 정서적인 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추풍령의 또 다른 이름은 백령(白嶺)이다. 물이 적고 토지가 척박하였던 과거 추풍령 인근 지역에서는 메밀 농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 백령이라는 별칭은 새하얀 메밀꽃이 고갯마루를 뒤덮은 흰 고개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조선 말 추풍령 일대의 행정 구역 명칭은 경상북도 김산군 황금소면이었다. 황금소면이라는 지명은 추풍령 역참에 황금소라는 관리 숙소가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황금'이라는 지명은 현재의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에 있는 황보(黃寶)와 금보(金寶)라는 마을에서 유래되었다. 1905년에는 경부선 추풍령역이 개통되었으며, 1906년에는 지방 관제 개편 시 충청북도 황간군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1914년의 부군면 폐합에 따라 매곡면 일부와 상주군 공성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황금면으로 개칭되었고 영동군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91년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추풍령'을 따서 황금면을 추풍령면으로 개칭하였다. 백두 대간에 위치한 '당마루' 추풍령은 경부선 철도가 개설되고 국도 4호선과 1970년 경부고속국도의 개통과 함께 추풍령

휴게소가 생기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고개인 동시에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고개가 되었다.
과거에 한겨울에도 눈 구경을 하기 힘든 영남의 남부 지방 사람들이 겨울에 서울로 여행하다가 먼 산에 허옇게 눈이 덮여 사뭇 경치가 달라지는 곳이 김천시 부근이라고 한다. 이곳 사람들에 의하면, 예전 금릉군 농소면에서 남쪽의 성주군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자 경부선이 개통되어 김천역이 운행을 시작한 1905년에 항일 의병들이 모여들어 제국주의 일본에 대항하였던 곳인 살티고개를 경계로 하여 그 북쪽에는 눈이 많아도 그 남쪽에는 눈이 거의 없다고 한다. 김천 지역의 기후는 이곳 북쪽에 위치한 백두대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백두대간을 따라 상승하여 차고 건조한 바람이 되며, 여름에는 남동풍이 백두대간의 영향으로 더운 바람이 된다. 따라서 겨울에는 둥실거리는 조각구름들이 산맥을 넘어 눈밭이 되어 흩날리고, 여름에는 번개구름이 솟아 들판의 곳곳에 자주 벼락을 치는 것도 이 고장 날씨의 특징이라고 한다.



경부고속국도 준공 기념비-경부고속국도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탑으로, 1970년 12월 8일 제막식을 가졌다. 경부고속국도 총 428㎞의 중간 지점[서울 기점 214.44㎞]인 추풍령휴게소의 높이 240.5m 지점에 세워져 있다. 탑신 아랫부분을 클로버 형태로 꾸민 기념탑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높이는 30.8m에 이른다. 기단[8단]과 탑신[69단]을 합쳐 77단으로 축조되어 있는데 이는 준공일인 1970년 7월 7일과 경부고속국도 건설 중 희생된 77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추풍령휴게소 광장에서 기념탑으로 오르는 계단 역시 77계단으로 만들어졌다. 기단 전면과 후면에는 건설·번영·발전을 상징하는 부조 작품이, 탑신 양 측면에는 번영·평화를 상징하는 여신상이 부착되어 있다. 4면의 기단에는 부조 작품 외에도 '서울부산간고속도로는 조국 근대화의 길이며 국토통일의 길이다'라는 글귀와 「고속도로의 노래」라는 시(詩), 경부고

속국도 사업 개요[공사 기간, 총연장, 공사 인원 및 장비, 총공사비] 등이 적혀 있다.
[대중가요와 영화로 더욱 유명해진 추풍령] 추풍령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학·예술 작품으로는 이승하의 시 「고향으로 가는 길」과 남상규의 노래 「추풍령」이 있으며, 가곡으로는 「추풍령 넘으며」가 있다. 영화로는 1965년에 개봉한 「추풍령」이 있다. 1965년에 개봉한 영화 「추풍령」은 가난한 가운데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역경을 헤쳐 나가는 부자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이다. 전범성이 각본·감독을 맡고 김진규·이경희·최남현·석일우 등이 출연하였다.
[추풍령에 대한 김천인들의 애정을 바라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백두대간의 대표적인 고갯길 추풍령은 예나 지금이나 영남의 관문으로서 정치, 군사,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김천 시민들은 추풍령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김천이라는 지역 이미지에서 추풍령을 지우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 시민들의 추풍령에 대한 애착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다. 원래 추풍령 고갯길의 당마루마을은 김천 땅이었고, 김천찰방에 속한 20개 역 중의 하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고개인 동시에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고개가 바로 추풍령이다. 이에 영동군은 추풍령의 일부를 감싸 안은 황금면을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추풍령면으로 개칭할 정도로 애착을 보이고 있다. 김천 지역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추풍령은 그저 영동군과 김천시를 연결하는 하나의 고개 정도로 여기며 별다른 관심은 없는 듯 같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김천문화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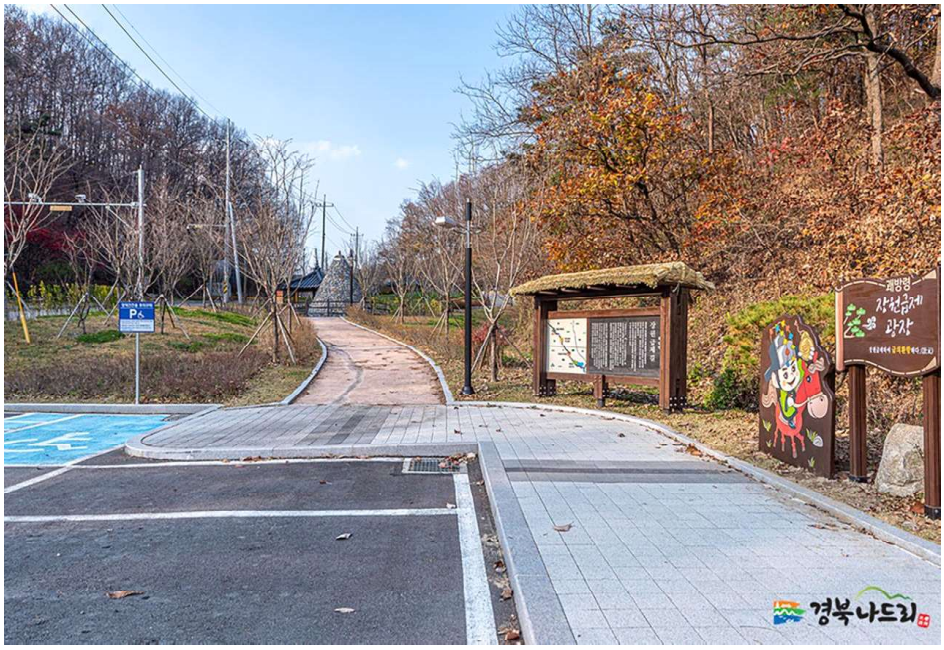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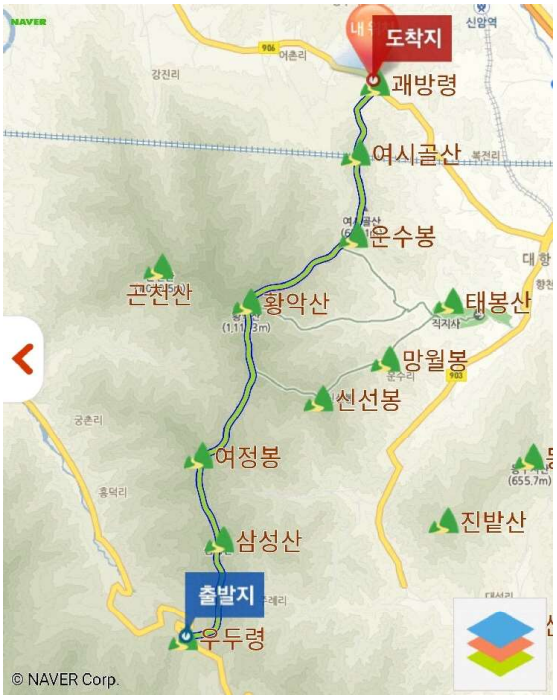
계방산/괘방령(역사성2, 인지도2, 접근성10, 연결성10)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과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을 잇는 고갯길.
지방도 906호선이 지나는 괘방령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보면 괘방령(掛榜嶺)이라 기록되어 있다. 『산경표(山經表)』에는 계방산(桂榜山)이라 적혀 있다. 현지 주민들은 '괘뱅이'라고 발음한다. 요즘 나오는 일부 지도에는 궤방령(机榜嶺)이나 개방령이라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괘뱅이'라는 발음을 한자로 옮기면서 생긴 차이점으로 보인다.
이웃한 추풍령이 관로(官路)라면, 이곳은 간섭 받기 싫어하는 장사꾼들이 이용하는 상로(商路)였다. 또 조선 시대 영남의 유생들이 과거 보러 한양 갈 때 추풍령을 넘으면 추풍낙엽처럼 낙방한다는 속설 때문에 마음 약한 유생들은 추풍령 대신 이 괘방령을 넘었다 전해진다. 괘방령의 '방(榜)'자가 합격자 발표 때 붙이는 방과 같은 글자라는 사실이 이들을 괘방령으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괘방령은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와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를 잇는 고갯길이다. 백두대간 산줄기로는 황악산[1,111m]와 가성산[730m] 사이에 위치한다. 높이는 300m가량 된다. 괘방령 정상은 낙동강과 금강의 분수계 역할을 한다. 김천 쪽으로 흐른 물은 직지천을 지나 감천으로 흘러든 뒤 낙동강에 합류하고, 영동 쪽으로 흐른 물은 어촌천이 되어 초강천으로 흐른 뒤 금강에 합류한다.
괘방령 아래의 마전마을은 전의 이씨(全義李氏) 집성촌이다. 조선 정조 때 경상남도 의령에서 서울로 과거를 보러가던 전의 이씨 24세손 이춘영·은영 형제가 괘방령 길목에 이르렀다가 직지천의 아름다운 풍광과 인심에 반해 터를 잡고 정착한 이래 대대로 전의 이씨 집성촌이 이루어 왔다고 한다. 괘방령 옛길은 지방도 906호선에 묻혀 현재 교통로서의 기능이 퇴색됐지만

역사적으로 국난 극복의 고갯길로서 가치가 크다. 그에 비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음으로 괘방령의 홍보하기 위해 김천시에서는 2021년 괘방령과거길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 복산마을에서 괘방령 정상까지 쉼터와 주막, 과거 관련 벽화조형물 등을 조성했다.(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김천문화대전)





대덕산(역사성6, 인지도5, 접근성6, 연결성10)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경계에 있는 백두대간의 산.
높이 1,290m. 주위에 국사봉·덕유산·월매산이 있다. 영남·호남 지방의 분수령으로 남서·북서 사면 일대에는 암석 연암부의 차별 침식에 의해 형성된 복잡한 지형들이 나타난다. 또한 동쪽과 서쪽 사면에서는 금강의 지류인 무풍천과 낙동강의 지류인 감천이 각각 발원하여 영남·호남 지방의 분수령이 된다. 주위에는 가야산국립공원·덕유산국립공원이 있다.(다음백과)



대덕산(大德山)은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 덕산마을에서 서남서 쪽으로 약 2.3㎞, 무주군 무풍면 증산리 시동마을에서 남동쪽으로 약 3.3㎞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정상부 높이 1,290m의 봉우리이다. 대덕산에서 남남동 쪽으로 1.6㎞ 지점에는 초점산이 위치하는데, 이 산은 삼도봉이라고도 불리며, 경상북도 김천시,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남도 거창군의 경계가 된다. 대덕산과 남쪽의 초점산 일대를 중심으로 소백산맥과 가야산맥이 갈라지며, 대덕산 주위에는 국사봉, 덕유산, 월매산 등이 있다.

명칭 유래로는 한 도인이 옛날 이 산에서 백일기도 후에 공덕을 쌓고 도가 통하였다고 하여 대덕산이라 부르고 있다.

대덕산 일대의 지표는 대부분 암설이 사면을 넓게 덮고 있으며, 토양층은 일부 지역에서 매우 얇게 발달하고 있다. 대덕산은 소나무와 참나무 등의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재하는 혼합림을 이루고 있으며, 정상부는 인위적으로 식생이 제거되어 있다. 대덕산은 백두대간 상에 위치하여 북에서 남으로 이어진 산줄기를 이루고 있다. 대덕산의 동사면에서 발원한 하천은 감천이 되어 김천시 내부를 흐르며, 대덕산의 서사면에서 발원한 하천은 도마천으로 무주남대천이 되어 금강에 유입한다.

대덕산은 백두대간 상에 위치하며,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의 경계를 이루는 초점산에 인접하여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이다. 특이한 형태의 기암괴석의 경관은 나타나지 않지만, 서사면과 동사면에는 정상부로부터 이동된 암설들이 지표를 넓게 덮고 있는 암괴원 지형이 잘 발달하고 있다. 현재 정상부는 인위적인 초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헬기 이착륙장이 있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향적봉(역사성6, 인지도6, 접근성8, 연결성6)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와 설천면 심곡리의 경계를 이루는 덕유산 최고봉.
향적봉(香積峰)은 불교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향적봉[1,614m]은 덕유산의 최고봉으로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와 설천면 심곡리의 경계를 이룬다. 북쪽으로는 설천봉, 만선봉, 두문산(斗文山), 금해산, 성지산(聖芝山), 청량산, 백운산으로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중봉, 무룡산, 남덕유산으로 연결된다. 동쪽은 백련사(白蓮寺)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천동 계곡이고, 서쪽은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구량천(九良川)의 상류에 해당하는 분수계를 이룬다. 동쪽 구천동으로 흐른 물은 남대천(南大川)을 거쳐 금강 중류로 유입되는데 비하여, 서쪽으로 흐른 물은 구량천을 거쳐 상류인 용담 댐으로 유입된다. 경위도상으로는 북위 35° 51', 동경 127° 43'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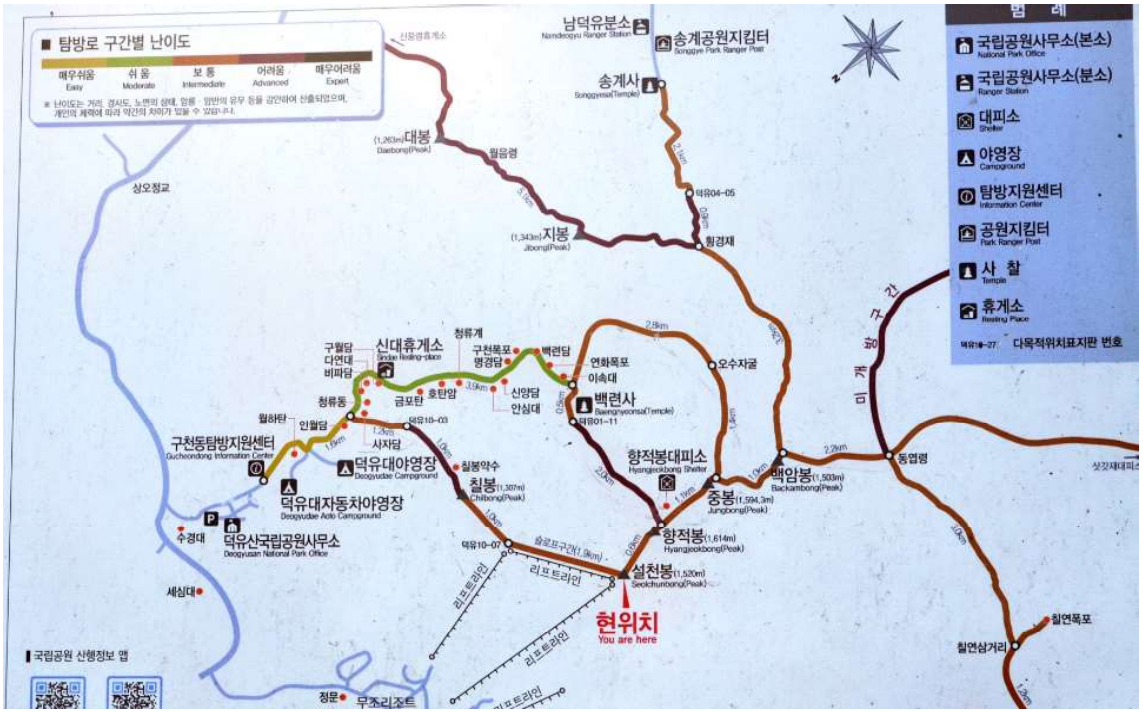


향적봉은 무주 33경 중 제33경에 해당되며, 등산로는 무주 리조트에서 곤돌라를 이용해 설천봉을 거쳐 향적봉으로 오르는 향적봉 제1코스[0.6㎞, 40분 소요]와 삼공 탐방 지원 센터~인월담~백련사를 거쳐 오르는 향적봉 제2코스[8.5㎞, 2시간 40분 소요]가 있다. 설천봉과는 0.6㎞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남쪽에는 향적봉 대피소가 있다. 향적봉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백련사[2.5㎞] 길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오수자굴과 남덕유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다. 남덕유산과는 14.8㎞ 떨어져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무주문화대전)






국립공원관리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탐방로 구간별 난이도
매우쉬움 Easy
쉬 움 Moderate
보 통 Intermediate
어려움 Advanced
매우어려움 Expert
범 례
국립공원사무소(본소) National Park Office
국립공원사무소(분소) Ranger Station
대피소 Shelter
야영장 Campground
탐방지원센터 Information Center
공원지킴터 Park Ranger Post
사 찰 Temple
휴게소 Resting Place
다목적위치표지판 번호
남덕유분소 Namdeokyu Ranger Station
송계공원지킴터 Songgye Park Ranger Post
송계사 Songgyesa(Temple)
대봉 (1,263m) Daebong(Peak)
월음령
지봉 (1,343m) Jibong(Peak)
덕유04-05
횡경재
상오정교
신대휴게소 Smile Resting-place
청류계
구월담
다연대
비파담
구천폭포
명경담
백련담
연화폭포
이속대
백련사 Baengnyeonsa(Temple)
덕유01-11
오수자굴
청류동
금포탄
호탄암
신양담
안심대
월하탄
안월담
덕유10-03
사자담
구천동탐방지원센터 Gucheondong Information Center
덕유대야영장 Deogyudae Campground
칠봉약수
칠봉 (1,307m) Chilbong(Peak)
덕유대자동차야영장 Deogyudae Auto Campground
향적봉대피소 Hyangjeokbong Shelter
백암봉 (1,503m) Backambong(Peak)
중봉 (1,594.3m) Jungbong(Peak)
동엽령
수경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Deogyusan National Park Office
덕유10-07
향적봉 (1,614m) Hyangjeokbong(Peak)
설천봉 (1,520m) Seolchunbong(Peak)
리프트라인
현위치 You are here
세심대
칠연폭포
칠연삼거리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
정문
무주리조트

육십치/육십령(역사성3, 인지도4, 접근성10, 연결성10)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과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
육십령 명칭의 유래에는 세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첫 번째설은 함양군의 안의면과 전라북도 장수군의 읍치에서 고개까지 거리가 60리[약 23㎞]라는 설이고, 두 번째설은 60개의 작은 굽이를 넘어와야 육십령에 이른다는 뜻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다. 세 번째설은 밤낮으로 화적떼가 들끓어서 장정 60명이 함께 고개를 넘어가야 도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십령이라 불렀다는 설이다.
옛 이름은 육십현(六十峴)이며 육복치(六卜峙)라고도 불렀다.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와 중남리 일대에 걸쳐 있다. 육십령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안음에서 험조처가 하나 있다고 하면서 "육십현이 현 서쪽 41리[약 16㎞]에 있다. 전라북도 장수현으로 가는 지로로서 험한 곳이 2리[약 0.78㎞]이다"라고 적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안음에는 "육십현은 현 서북쪽 60리[약 23㎞] 지점에 있으며 전라도 장수현의 경계이다"라고 하였다. 『화림지』에는 "황봉(黃峯)의 남쪽이 육십현 고개이다. 전라도 장수의 경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육십령은 백두대간 본줄기에 있다. 백두대간은 함양군 서쪽의 경계를 이루며 남북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육십령을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산줄기가 할미봉을 지나 남덕유산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다시 구시봉을 지나 영취산과 장안산으로 이어져 지리산에 다다른다. 육십령고개의 동사면은 지천을 거쳐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南江)의 최상류 계곡으로 이어지고 서사면은 평지천을 거쳐 명덕천으로 연결되어 금강의 최상류 계곡과 이어진다. 고개 양 사면을 흐르는 하천은 많은 침식분지를 만들어 동쪽에 함양·안의·도천(道川) 등의 산간분지와 서쪽에 장계(長溪)·명덕(明德) 등의 산간분지를 형성하였다.

함양군 서상면과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을 연결하는 고개로 높이는 734m이다. 함양군 서상면에서 장수군 장계면으로 이어지는 국도26호선이 육십령고개를 지난다. 육십령고개는 예로부터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이자 도 경계를 이룬다. 2001년 개통한 통영대전고속도로 함양~무주 구간은 육십령고개의 남서쪽 약 3㎞ 구시봉 부근을 육십령터널 구간으로 통과한다. 육십령 아래 화림동 계곡에는 거연정, 동호정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정자가 있어 예로부터 정자 문화의 보고라 불렸다. 그중 하나인 농월정(弄月亭)은 조선 선조 때 관찰사와 예조참판을 지낸 지족당(知足堂) 박명부가 정계에서 은퇴한 뒤에 지은 것이다. 농월정이라는 이름은 '달을 희롱한다'는 뜻으로 밤이면 달빛이 물 아래로 흐른다고 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함양문화대전)



